

독후활동지(학생용)

동녘 청소년문학

나의 첫 번째 거짓말



수록 작품

항보나 「나비리본」

하유지 「나는 있어 고양이」

지혜진 「이 버블을 터트려 줘」

이선주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지지 않는다」

김선정 「위선의 효능」

| 활동 목표 |

1.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인물의 감정 변화와 연결해 이해하기
2. 거짓말의 동기와 책임을 한 방향으로만 단정하지 않기
3. 인물의 말을 다시 써 보며 자신의 언어로 작품의 의미 넓히기

| 줄거리 |

거짓말을 열어 웅크린 우리를 보여 주는 다섯 편의 이야기

거짓말이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나의 첫 번째 거짓말』은 거짓말이 시작되는 그 내밀한 순간을 담아낸다. 거짓말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불안과 두려움, 질투와 욕망 같은 복잡한 감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오랫동안 청소년 소설을 써 온 5인의 소설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첫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을 그리며, 독자에게 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짓말 안에 숨은 다양한 층위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친구를 동경하지만 동시에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친구와 가까워지고 싶어 지어 낸 사소한 설정, 두려운 마음에 꼭꼭 숨긴 진실,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해 버리는 순간, 거짓으로 시작한 마음이 진심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다섯 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이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숨기게 되는 순간을 비추며, 거짓말하는 것이 단순한 속임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싶어서, 잃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지키려고 선택한 서툰 방식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진실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진실은 거짓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첫 번째 거짓말》속 인물들은 어느 하나 완벽하지 않다. 누군가는 도망치기 위해, 누군가는 붙잡기 위해, 또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그 말들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이 앤솔러지는 거짓말을 멈추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때의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우리는 진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진실은 거짓 안에 몸을 꼭꼭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비리본〉 - 정연은 우연히 인기 가수 와이브이의 열애 장면을 촬영한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 뜻밖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해리는 엄마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며 정연에게 미행을 의뢰한다. 가벼운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정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와 해리에 대한 묘한 질투,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결국 정연은 사실과 다른 말을 선택하고, 그 순간의 선택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이후 정연에게 '나비리본'은 단순한 머리끈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과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남는다.

〈나는 있어 고양이〉 - 아영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해 왔다. 친구 무리에 섞이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 관계가 끊어진 뒤, 다시 혼자가 된다. 그러던 중 고양이를 좋아하는 연두와 가까워지고 싶어 키우지도 않는 고양이 완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은 점점 커져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영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린다.

〈이 버블을 터트려 줘〉 - 아진은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력한 어머니, 진심 없는 위로를 건네는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은 채 일본에서 한국으로 떠나온다. 반복된 상처 속에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전학 온 학교에서 자신과 닮은 모습의 가현을 만나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느낀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가 쌓이고 둘의 관계는 어긋나는데.....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지지 않는다〉 - 이 작품의 주인공은 '첫 번째 거짓말'을 주제로 한 원고를 의뢰받은 소설가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는 여덟 살 아이가 마음을 숨긴 채 "괜찮아"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된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주인공은 자신이 어린 시절 처음 거짓말을 했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거짓말이 시작되는 마음의 순간을 되짚는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규율을 이리저리 뒤집어보며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위선의 효능〉 - 경주는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속이 편한 성격으로, 마음에 없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견디지 못한다. 그 결과 친구 없이 지내 왔지만,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만수를 만나게 된다. 만수는 위선의 효능이라는 일종의 스킬을 이용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경주는 만수의 태도와 행동을 위선이라 여기며 불편해하지만, 동시에 그 방식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모습을 목격한다. 수연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경주는 만수가 알려 준 '위선의 효능'을 실천해 보기로 하는데.....

나비리본

황보나

●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려오게 하고도 싶은 마음

정연이 해리의 부탁을 받아들이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마음이 오갔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6-17쪽)

내 안에서는 해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과 해리가 언제나처럼 외톨이로 있길 바라는 마음이 양립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해리에게 굳이 따로 말을 걸지는 않았었다. 내게는 원래부터 좀 고인 구석이 있었고 해리에 대한 일이라면 특히 더 그랬던 것 같다.

나는 해리의 그런 단단함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 후로 줄곧 해리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어느 순간 나는 내가 해리와 비슷해지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해리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해리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랬던 것은.

㉡ (17쪽)

“누구를 뒤쫓아야 하는데?”

“엄마.”

“어?”

“아무래도 우리 엄마, 바람을 피우는 것 같거든.”

1. ㉠에 나타난 정연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풀어 쓴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해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 ② 해리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자신보다 단단해 보이는 해리를 불편해하기도 했다.
- ③ 해리가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누구보다 먼저 도와주고 싶었다.
- ④ 해리의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 인기를 얻고 싶었다.

2. 정연이 미행 부탁을 받아들인 까닭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보상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만 고민했기 때문이다.
- ② 해리의 엄마를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③ 해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해리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 ④ 부모님이 미행을 해 보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3. 정연이 미행을 시작하기 전에 해리에게 먼저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말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순간

정연이 확인한 사실과 해리에게 건넨 말을 비교하고, 그 거짓말의 뿌리를 찾아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22-23쪽)

해리네 엄마는 그저 자치회관의 문화강좌 수강생으로서 줌바댄스를 추러 다닌 것뿐이었으니까. 해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다.

“역시 그런 거지?”

어쩌면 나는 뭐가 그렇다는 건데? 하고 되물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그 불분명한, 아니 사실은 분명한 그 질문에 고개를 미약하게 끄덕이며 함부로 말해 버렸다.

“맞아.”

㉡ (34-35쪽)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내게 거짓을 말한 적은 없지만, 거짓말을 한 거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소외된 내 마음 밑바닥에 얼마나 깊은 상흔을 새겼는지 알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 나는 그때 어쩌면 해리를 나와 비슷한 처지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나의 수렁을 숨겨 둔 어딘가는 해리의 걸음이 닿는 길목이 되었으니 말이다.

4. ㉠에서 “맞아”라는 말이 해리에게 끼친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해리의 의심을 멈추게 하고 엄마를 믿게 했다.
- ② 사실이 아닌 해리의 두려움을 사실인 것처럼 굳혀 버렸다.
- ③ 정연이 미행에 실패했다는 사실만 알려 주었다.
- ④ 해리가 엄마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를 주었다.

5. ㉡을 바탕으로 볼 때, 정연의 부모와 정연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①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 ②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두 같은 약속을 했다.
- ③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다.
- ④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밝혀 문제를 해결했다.

6. 정연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했다면 어떤 말이었을지 써 봅시다.

● 나비리본이 기억하게 하는 것

거짓말이 끝난 뒤에도 남은 감정과 '나비리본'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36-37쪽)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해리가 단 하루도 스터디 카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해리가 먼저 내게 연락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나부터 연락을 하는 건 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해리는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전학을 갔다. 나는 해리네 가족의 해체를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 (3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비리본을 볼 때마다 해리를 생각했고, 내 거짓말을 떠올렸다. 그러다 보면 몸 안 어딘가가 어지러웠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결국에는 고개를 웅크리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게 익숙하다. 세상에는 나비리본, 혹은 나비리본과 비슷한 무언가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7. 작품에서 '나비리본'이 정연에게 지니는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해리 엄마가 잠시 누렸던 행복과, 그 사실을 비틀어 전한 정연 자신의 거짓말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표지
- ② 정연이 해리에게 주려고 샀다가 건네지 못한 선물
- ③ 와이브이가 무대에서 착용했던 장식
- ④ 해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알려 주는 표지

8.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 ① 가족의 해체가 전부 정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 ② 해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 ③ 모든 결과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거짓말이 해리에게 상처를 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느낀다.
- ④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믿는다.

9. 정연이 지금 해리에게 연락한다면 꼭 답아야 할 내용을 '사실-사과-바라는 일'의 순서로 써 봅시다.

나는 있어 고양이

하유지

● 진심과 거짓과 진실의 삼각관계

세상에 없던 완두가 갑자기 태어난 이유와, 아영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40-41쪽)

문제는 우리 집에 완두가 없다는 점이였다.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 완두 애기는 걱정하고 꾸며 낸 것이다.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가 없는 연두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으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진심이다. 하지만 고양이가 있다는 건 거짓이다. 그런데 내가 연두를 좋아한다는 건 진실이다. 진심과 거짓과 진실의 삼각관계.

㉡ (46-47쪽)

난 그저, 민호한테만은 내 마음을 꾸며 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거짓말로 풀칠해 놔야 할 만큼 위태로운 사이가 아니니까. 내가 반 애들의 호감을 사려고 살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처구니없어하는 지민호. 그러면서도 내가 찾아가면 문을 열어 주고 호호랑 놀게 해 주고 메시지를 보내면 성의 없는 답이라도 꼬박꼬박 해 주는 지민호. 그런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다.

1. ㉠의 '삼각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과 연두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지만, 완두의 존재는 거짓이다.
- ② 고양이를 싫어하는 마음만 진짜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다.
- ③ 완두는 실제로 있지만 연두를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 ④ 아영은 무엇이 진짜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2. 아영이 민호 앞에서는 자신을 꾸미지 않으면서 연두 앞에서는 거짓말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민호는 고양이를 싫어하고 연두는 좋아하기 때문이다.
- ② 민호와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연두에게는 있는 그대로 다가가면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 ③ 민호에게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④ 연두가 먼저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3. 완두라는 존재를 거짓말로 창조하지 않고도 아영이 연두에게 건넬 수 있었던 첫마디를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 거짓말을 지키려고 만든 더 많은 거짓말

완두가 사라진 장면을 통해 거짓말이 아영과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61-63쪽)

“근데 아영아. 완두 어디 갔어?”

“완두? 여기 소파에.....”

없었다. 소파 밑과 텔레비전 뒤와 커튼 뒤를 살피고 주방으로 갔다. 없었다.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간 연두가 완두를 부르고 다녔다. 나는 완두를 ‘완두야!’라고도 ‘호호야!’라고도 부를 수 없어서 핏기 가신 입술을 꼭 다물고 사방을 둘러보기만 했다.

㉡ (64-65쪽)

“완두를 왜 호호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은.....”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다. 완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얼떨결에 한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야 송아영, 이 와중에 또 거짓말이냐? 얼떨결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었잖아!

“호호라고, 완두 자매가 있었거든.”

4. ㉠에서 아영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고양이가 놀랄까 봐서
- ② ‘완두’라고 부르면 고양이가 못 알아듣고, ‘호호’라고 부르면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 ③ 연두가 혼자 찾고 싶어 해서
- ④ 고양이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5. ㉠과 ㉡이 보여 주는 아영이 거짓말을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 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사실을 말한다.
- ② 처음부터 상대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 ③ 하나의 거짓말이 들킬 때마다 새로운 설정을 덧붙여 위기를 넘긴다.
- ④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대신 책임진다.

6. ㉡의 “사실은.....” 뒤에 아영이 꼭 했어야 할 말을 ‘사실-이유-미안함’이 드러나게 써 봅시다.

● 과자 봉지 모양을 한 거짓말

시금치 맛 감자칩이 다시 등장한 까닭과 열린 결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66-67쪽)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대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과 취향에 나를 맞추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늘었다. 거짓말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으니까. 사람 사귀는 법을 영영 모르고 살다 죽는 게 아닐까 겁나고 무서울 때도 많았다. 혹시 나는 야옹 울고 싶는데 멍멍 짖을 수밖에 없는 외톨이 고양이가 아닐까.

㉡ (68쪽)

시금치 맛 감자칩이었다.

“맛있겠다. 아영이 너도 시금치 좋아한다고 했지? 우리 이거 먹어 보자.”

시금치 맛 감자칩이라니, 과자 봉지 모양을 한 거짓말 같았다. 나는 연두가 건네는 감자칩을 받으려다가 손이 떨리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감자칩. 파사삭,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던 나는 시금치 맛 감자칩을 주워 들고는 입을 열었다.

“연두야, 저기 있잖아.....”

7. ㉠에서 아영이 거짓말을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거짓말을 하면 언제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 ② 상대의 취향에 자신을 빠르게 맞추고 거절당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어서
- ③ 진실을 말하면 법을 어기게 되어서
- ④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만 좋아해서

8. ㉡의 시금치 맛 감자칩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새로운 거짓말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
- ② 과거의 작은 거짓말과 현재의 큰 거짓말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하며, 고백할 기회를 여는 장치
- ③ 연두가 고양이를 잊게 하는 장치
- ④ 아영과 민호를 싸우게 하는 장치

9. 마지막 문장 “연두야, 저기 있잖아.....”를 이어 써 봅시다. 완두의 진실과 아영의 진짜 마음이 함께 드러나게 2~3문장으로 써 보세요.

이 버블을 터트려 줘

지혜진

● 아진이 '괜찮아, 힘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이유

아진에게 위로가 왜 거짓말처럼 들렸는지, 그 말 뒤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76-79쪽)

아빠는 몇 년 전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말들은 더 사나운 몸짓이 되어 버렸다. 엄마랑 둘이 도망치듯 한국으로 왔다. 그러다 언제부터였는지, 나를 보는 시선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괜찮다, 힘내라 등등의 말을 들으면 화도 났다. 정작 자신들은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내 세상은 온통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 (77-79쪽)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이제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 우리가 겪은 일은 그런 일이다.

“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하고 싶지 않은 말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다.

1. 아진에게 “괜찮아, 힘내”가 거짓말처럼 들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말한 사람들이 일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 ② 실제 위험과 상처는 그대로인데, 상대가 모든 일을 이해하고 곧 좋아질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 ③ 아진이 위로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 ④ 그 말을 들으면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2. 아진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까닭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혼자 있는 것을 언제나 즐기기 때문에
- ② 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나 무력해질까 두려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 ③ 친구들이 모두 아진을 싫어하기 때문에
- ④ 할머니가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해서

3. 힘든 일을 겪은 친구에게 ‘괜찮아’라고 상투적으로 말하는 대신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써 봅시다.

● 같은 상처가 곧 같은 마음은 아니다

아진은 자신이 싫어하던 위로를 왜 가현에게 되풀이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90-91쪽)

“괜찮아. 힘들면 울어도 돼. 나 네 마음 뭔지 알아.”

“우리 곧 어른 될 거잖아. 조금만 참으면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발끝만 보고 있었다. 그러니 나도 비밀을 말해야 했다.

“우리 집도 똑같아. 아빠 피해서 일본에서 도망쳤고, 여기로 전학 온 거야.”

우리가 같다는 건 슬프지만,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 (97-99쪽)

“너랑 나랑 같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좋았어?”

“우리가 겪는 일을 어떻게 좋다는 말로..... 난 그냥 너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해한다, 괜찮다 하면서 너 그날 내 불행에서 위로받았잖아. 아니야?”

“어설픈 위로 같은 거 앞으로도 사양할게.”

4. ㉠에서 아진이 앞서 싫어하던 말을 가현에게 되풀이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가현의 말을 듣기 싫어서 대화를 끝내려고
- ② 같은 일을 겪었으니 자신은 가현의 마음을 완전히 안다고 믿었고, 빨리 위로해 주고 싶어서
- ③ 웹툰 대회에 나갈 이야기가 필요해서
- ④ 엄마가 그대로 말하라고 시켜서

5. ㉡에서 가현이 “내 불행에서 위로받았잖아”라고 말한 뜻은 무엇일까요?

- ① 아진이 가현의 일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겼다는 뜻
- ② 아진이 가현도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사실에서 ‘나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묘한 안도감을 얻었다는 뜻
- ③ 아진이 가현에게 돈을 받았다는 뜻
- ④ 아진이 가현의 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

6. 아진의 “나 네 마음 뭔지 알아”를 가현의 마음을 단정하지 않는 말로 바꾸어 써 봅시다.

● 버블이 터진 뒤에 놓인 나뭇가지

아진이 자신을 속여 온 말풍선을 터트린 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02-103쪽)

우리가 겪은 일은 같지만, 같지 않다. 그걸 가장 잘 아는 내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했다. 그걸 진심이라고 포장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나를 무수히도 속여 왔던 최초의 사람은 나였다. 내 머리 위에 띄워진 버블이 평,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

㉡ (103-104쪽)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네 불행이 들렸을 때부터.”

내 불행에 나뭇가지를 놓아 준 건 가현이었다. 가현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내가 오른쪽 고슴도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왼쪽 고슴도치였다는 걸.

“어디 갔다 와? 우리 집?”

“응. 기다렸어.”

7. ㉠에서 아진이 터트린 ‘버블’의 정체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자신은 누구보다 강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실한 위로만 한다는 믿음
- ② 웹툰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할 거라는 기대
- ③ 가현이 같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오해
- ④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8. 아진이 자신을 ‘오른쪽 고슴도치’가 아니라 ‘왼쪽 고슴도치’라고 깨달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 ①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과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
- ② 가현보다 그림을 못 그린다는 뜻
- ③ 이제 가현을 도울 수 없다는 뜻
- ④ 웹툰의 결말을 다시 슬프게 바꾸겠다는 뜻

9. 두 사람 사이에 새로 떠오른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한 줄씩 써 봅시다.

아진: _____

가현: _____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지지 않는다 이선주

● 누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을까?

피노키오가 받은 벌과 화자의 첫 거짓말을 나란히 놓고, 책임의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06-107쪽)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해서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보다 고작 거짓말을 했다고 코를 길어지게 만든 어른들이 나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코가 길어진다는 건 '신체 변형'이 일어나는 일인데, 어린아이가 눈앞의 달콤함 때문에 거짓말을 한 일이 신체 변형을 줄 만큼 잘못된 일이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피노키오에게 형벌을 내린 어른들은 거짓말을 안 했을까?

㉡ (122-123쪽)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차에 치였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안 그래?"

"엄마 걱정 시키고 싶지 않지? 그렇지?"

남자가 대답을 요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나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여기 봐, 여기. 차가 폭 파였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딸 같아서 넘어가는 거야. 너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1. ㉠에서 화자가 『피노키오』를 비판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피노키오가 너무 쉽게 어른이 되기 때문에
- ② 거짓말의 상황과 어른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아이에게 무서운 벌만 주기 때문에
- ③ 나무 인형이 말을 하는 설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 ④ 이야기의 분량이 너무 짧기 때문에

2. ㉡에서 어린 화자가 침묵하게 된 가장 큰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돈을 갖고 싶어서
- ② 사고가 재미있어서
- ③ 운전자가 엄마의 걱정과 수리비를 내세워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었기 때문에
- ④ 사고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서

3. 운전자가 책임 있는 어른이었다면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했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한 가지 써 봅시다.

● 딸의 거짓말 앞에서 멈춘 엄마

엄마는 인영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왜 곧바로 캐묻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27-131쪽 요약)

"재밌었어?"

"재밌었어."

"뭐 했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랑 피자 먹고 키즈 카페에서 놀았어."

혜윤 엄마가 말했다.

"바다가 초대하지 않겠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인영은 거짓말을 했다. 왜? 도대체 왜?

㉡ (132-133쪽)

"엄마, 내 생일에 할머니네 갈까?"

"파티 안 하고?"

모르는 척 물었다.

아이가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래 그러자"라고 선수를 쳤다. 이유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밥을 다 먹은 아이가 배를 툭툭 치며 "배부르다"라고 했다. 아이를 유심히 봤다. 아이의 코는 길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좋아하시겠네."

"나도 할머니 좋아."

"만나면 용돈 주지 사탕 주지.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엄마도 할머니 좋아하잖아."

내가 우리 엄마를 좋아했나.

"너한테는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엄마 어릴 땐 얼마나 무서웠는데."

"엄마랑 똑같네."

나는 인영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화낼 일이 열 번 있으면 꼭꼭 눌러서 겨우 한 번 훈육했다. 그런데 인영은 내가 할머니와 똑같다고 했다.

"엄마도 무섭잖아."

인영은 뺨기를 박았다.

인영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창피했을까? 엄마에겐 창피해하지 않아도 돼,라는 말을 해 주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엄마도 타인이라는 걸, 인영은 벌써 깨달았다.

나는 그때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돈을 물어 주게 될까 봐.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낼까 봐 겁이 났다. 엄마가 화를 내면 꼭 골목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무서웠다.

4. 인영이 생일 파티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까닭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엄마에게 새 선물을 받고 싶어서
- ② 초대받지 못한 상처와 창피함을 숨기고, 엄마가 화내거나 걱정하는 상황도 피하고 싶어서
- ③ 혜윤 엄마가 거짓말을 시켜서
- ④ 실제로 다른 생일 파티에 다녀와서

5. 엄마가 인영을 곧바로 다그치지 않은 까닭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인영의 거짓말에 관심이 없어서
- ② 사실을 이미 잊어버려서
- ③ 자신의 첫 거짓말을 떠올리며, 아이에게도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깨달아서
- ④ 인영이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서

6. 인영을 심문하지 않으면서도 '엄마는 네 편'이라는 뜻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 부모는 다 알까, 아이는 어느 순간에 자랄까

세 세대의 엄마와 딸이 서로의 거짓말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제목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26쪽)

"초등학교 3학년 때였잖아. 입술은 하얗게 질리고 손바닥엔 피가 흥건했지. 넘어졌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사흘을 앓았잖아. 그걸 어떻게 잊어."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 못 해? 부모는 다 알아. 자식은 공기 같은 거야. 아무리 쥐고 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 법이야."

㉡ (134-135쪽)

내 배 속에 열 달을 품었고 걸음마부터 한글을 배우기까지 내 손길이 안 닿은 순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건 내 착각이었다. 인영은 내 손길이 안 닿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인영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나도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집에 와 파일을 열고 앤솔러지에 실을 단편의 제목을 적었다.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지지 않는다.

7. ㉠의 "자식은 공기 같은 거야"라는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 ① 부모에게 아이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존재라는 뜻
- ② 부모는 아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을 손에 쥐듯 모두 알고 통제할 수는 없다는 뜻
- ③ 아이는 부모와 반드시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
- ④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뜻

8. 작품의 제목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지지 않는다'에 담긴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 일까요?

- ① 거짓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② 거짓말은 얼굴에 표시되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므로, 그 말이 나온 상황과 마음까지 살펴야 한다.
- ③ 어린이는 거짓말을 해도 언제나 용서받아야 한다.
- ④ 어른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9. 진실을 말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적어 봅시다.

상대방 _____

자신 _____

위선의 효능 김선정

● 솔직함이 상처를 줄 때

경주는 희아의 '착한 말'이 거짓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솔직함도 관계를 다치게 합니다.

본문 함께 읽기

㉠ (138-140쪽)

-희아야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에이 무슨 선물이야

-갖고 싶은 거 주면 좋잖아. 뭐가 좋아?

-난 진짜 괜찮아

나는 좀 짜증이 났다. 아무리 사양해도 친구들은 선물을 할 거라는 걸 희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꾸 착하다고 칭찬을 받아서일까. 희아는 점점 더 착한 척을 했다.

-어차피 선물 받을 거 알면서 그냥 말하면 안 돼? 너 착한 거 충분히 아니까 그만 해.

그 뒤로 다른 채팅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 일 이후, 난 희아랑도 다른 애들이랑도 멀어졌다. 나는 인사도 없이 채팅방에서 나와 버렸다. 아무도 나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다.

1. 이 장면에서 주인공 경주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 ① 희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 것
- ② 희아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착한 척'이라고 단정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공격적으로 말한 것
- ③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
- ④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기억한 것

2. 경주가 아직 배우지 못한 '솔직함의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솔직한 말은 길게 하는 게 좋다.
- ②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상대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솔직함에도 상대의 마음을 묻는 태도와 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④ 친구 사이에서는 불편한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3. 경주가 희아에게 같은 뜻을 덜 상처 주게 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어차피 선물 받을 거 알면서 그냥 말하면 안 돼? 너 착한 거 충분히 아니까 그만 해.

● 착한 척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될까

만수의 '세팅'과 수연 앞에서 달라지는 경주를 비교하며 위선과 배려의 경계를 생각해 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43-147쪽 요약)

"넌 내가 어떤 애라고 생각해?"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고 불임성 좋은 애?"

"그래? 그럼 성공이네. 너한테 딱 그렇게 보이도록 나를 세팅했거든."

"사람들은 같은 일이 세 번 정도 반복되면 대부분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난 아예 세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한테 깔끔하고 수업 열심히 듣는 애로 각인됐잖아."

㉡ (158-159쪽)

수연이 추천한 아이스크림은 맛이 없었지만 나는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했다.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수연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수연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기쁘게 해 주고 싶은 마음과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4. ㉠은 민수의 말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만수가 말한 '위선의 효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좋은 인상을 주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타인의 인식뿐 아니라 실제 관계와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 ② 세 번 거짓말하면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규칙
- ③ 공부를 잘하면 성격도 좋아진다는 생각
- ④ 첫인상은 어떤 행동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

5. ㉡에서 경주가 혼란스러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아이스크림 이름을 잊어버려서
- ② 수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어, 자신의 행동을 가치와 진심 중 하나로만 나눌 수 없어서
- ③ 만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 ④ 수연이 경주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6. 경주가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한 이유를 '가식 / 배려 / 둘 다' 중에서 골라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 사람을 한 가지 마음으로만 판단하지 않기

경주가 만수와 수연을 의심한 뒤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함께 읽기

㉠ (166-167쪽)

만수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 만수가 나에게 말해 준 3의 법칙, 위선의 효능 따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이 읊었다. 반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뗐다.

“난 괜찮은데..... 남 도와주고 말 예쁘게 하고 지각 안 하고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갈게!”

그게 끝이었다.

㉡ (167-168쪽)

“경주야! 같이 가!”

수연이 체육관 쪽에서 뛰어오고 있었다.

“체대 입시학원 집중 주간이라 너무 바빴어. 피곤해서 학교에서 맨날 자고, 식단 조절하러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만수가 어떤 사람인지 희아가 왜 변했는지 그만 생각하자. 그런 건 일단 수연과 망고스틴 맛 신상 아이스크림을 먹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

7. ㉠의 반장이 만수의 ‘세팅’을 알고도 괜찮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① 만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 ② 시작한 의도와 별개로, 남을 돕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일 자체에도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③ 만수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 ④ 경주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8. 작품 마지막에 경주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
- ② 사람의 마음을 당장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자신이 겪은 관계와 현재의 즐거움을 믿어보겠다는 뜻
- ③ 수연의 말을 모두 거짓이라고 여기겠다는 뜻
- ④ 만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뜻

9.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을 완성해 봅시다.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행동을 할까, 아니면 _____?”
